

■ 투·개표 이모저모

아이도 어른도 인증샷... 투표 열기 후끈

사진 전송하며 “투표해”

○~투표를 마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투표소 앞에서 다양한 포즈로 인증샷(인증사진)을 찍어 지인들에게 전송, 투표를 독려해 눈길.

시민들은 투표를 마친 뒤 투표 확 인증을 촬영하거나 메모지, 손등 등에 찍은 기표 도장을 찍어 SNS에 올리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친구와 가족들에게 전송.

연예인들도 저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소품을 이용해 인증샷을 찍어 유포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특정 후보를 암시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이주여성들도 주권행사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필리핀, 일본, 몽골 출신의 이주여성 6명이 자녀들을 데리고 19일 오후 광주 시 북구 신안동주민센터를 단체로 찾아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

○~이사벨(여·48)씨는 “투표를 하면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다”며 “새 대통령이 이주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희망.

인증샷 초등학교 숙제로

○~광주지역 일부 초등학교가 학생들에게 투표의 의미를 숙제로 내워 19일 투표장에 부모의 손을 잡은 초등학교생들이 대거 등장.

초등학교생들은 “담임 선생님이 부모와 함께 투표장에 다녀온 소감과 투표소 앞 인증샷을 찍어서 제출하는 숙제를 내줬다”고 설명. 이 밖에도 자녀들을 데려와 민주주의와 투표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부모들이 늘면서 서구 쌍촌동 유촌초등학교 투표소에

는 한 때 유권자들의 줄이 100여m까지 이어지기도.

강시장·박지사도 한표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도 투표장을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뒤 시·도민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

강운태 광주시장은 19일 오전 9시 광주 서구 서광초등학교에 마련된 상무1동 제3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민주·인권도시의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모든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강조.

박준영 전남지사도 이날 오전 부인 최수복 여사와 함께 무안군 삼향읍 남양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 한 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투표참여를 당부.

소방대원들 도우미 출동

○~광주시소방본부 119 대원들은 이날 ‘119 투표 도우미’에 도움을 요청한 유권자 127명의 투표 도우미로 활동.

마을과 투표소의 거리가 먼 서창동 세동마을 어르신들은 단체로 급급차를 이용해 서창동주민센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

동부소방서 한 직원은 지난 19대 총선 때 투표 도와줬던 정보(87)씨를 기억하고 연락을 취했다가 뒤늦게 정씨의 별세 소식을 듣고 눈시울.

서명란 혼돈 불법 해프닝

○~여수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일 오후 1시20분께 여수시 돌산읍 백초초등학교에 마련된 돌산 제5투표소에서 유권자 이모(47)씨가 선거인명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서명



19일 오후 광주시 동구 전남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선거 개표원들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이 기재된 사실을 발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명부 대조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며 “서명란 간 옆 다른 서명란에 이씨의 서명을 받고 정상적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

이 밖에도 광주동부교육청 투표소 인근에서 20대 초반 2명이 불법 홍보를 한다는 신고와 민주통합당 문제인 후보의 목소리가 녹음된 투표 독려된 간 옆 다른 서명란에 이씨의 서명 전화가 걸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모두 투표독려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확인.

했다.

이 문자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 저 문제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신번호는 선거일을 뜻하는 ‘1219’로 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제인 대신 후보 측은 “어젯밤 10시3분에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0개씩 끊어보내는 수동발신으로 보냈다”며 “일부 메시지가 오늘 아침에 도착한 것은 트래픽에 걸려 늦게 도착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 대통령 당선자 권한과 예우

벤츠 방탄차 제공 24시간 밀착 경호

새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2월 25일 취임 전까지 두 달여 간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당선인은 자신을 보좌하며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직 인수위를 설치하게 된다. 인수위가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당선인은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엔 정부기관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선인은 인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취임 전까지 당선인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당선인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경호를 받는다. 청와대 경호처 전담팀이 24시간 밀착해 당선인의 신변을 보호하며, 경찰과 함께 자택 경호를 맡게 된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경호 대상이다.

청와대 경호차는 이미 이달 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일까지 당

선인에 대한 경호안전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전담 경호대에는 근접 경호요원은 물론, 폭발물 검측요원·통신지원 요원·보안관리 요원·의료지원 요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편성돼있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벤츠 600 방탄 차량이 제공되며,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운전을 전담한다. 당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교통신호 통제 편의도 제공된다. 당선인이 요청하면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 KTX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선인의 경호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자택이 아닌 별도의 안전가옥(안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당선인이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 노회용 광주 동구청장 당선자 인터뷰

“문화수도로 동구 부활 복지·일자리 해결 최선”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광주시 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양혜령 전 시의원을 누르고 승리한 노회용(50) 동구청장 당선자는 19일 “더 결속하고 낮은 자세로 동구 부활이라는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특히 “지지해주시구 민여러분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며 “오직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은혜와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혹시 확대됐을 수도 있는 갈등과 반목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동구를 하나로 화합시켜 동구 발전을 위한 에너지를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거과정에서 내세운 ‘마을복지와 문화전당까지’라는 구호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

겠다”며 “주민복지와 문화전당은 동구의 숙원인 재개발과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미래의 키워드”라고 말했다.

이어 노 당선자는 “앞으로 동구의 비전을 세워가는 데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을 창조공공체의 주인공으로 모시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노 당선자는 1996년 지방고시(1회)에 합격한 뒤 동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동구청 지역교통과장, 광주시 문화수도정책관, 문화관광정책실장을 역임했다.

2005년 광주시에 근무할 당시 공무원노조에서 뽑은 ‘가장 존경하고 싶은 상사’ 1위로 뽑히기도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재·보선 당선자	
◇동구청장	
광주 동구청장 노회용(50·민)	
★ 노회용(50·민주)	40,808
최정원(새)	3,801
양혜령(무)	22,271
◇기초의원	
광주 동구 나 조기훈(49·민)	
★ 조기훈(민)	7,312
문홍(통진)	3,449
문근호(무)	1,442
김진우(무)	2,933
여수시 바 김영철(50·통진)	
★ 김영철(통진)	5,644
김덕모(무)	3,894
최진모(무)	4,306
주재현(무)	4,889
여수시 자 김양호(45·민주)	
★ 김양호(민주)	20,075
이광민(통진)	5,718
김충희(무)	5,823
화순군 자 윤석현(43·통진)	
★ 윤석현(통진)	10,394
정철진(민주)	10,036
박태희(무)	3,346

선관위, 文지지 문자 수사 의뢰

서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선 투표 당일 민주통합당 문제인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선관위 측은 이날 “선거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했지만, 해당 후보 측에서 발송사실을 부인하는 등 행위 주체가 불분명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

전국꽃배달서비스 365일 24시간

엘리시아 꽃배달 검색

ELYSIA 엘리시아

엘리시아 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EVENT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EVENT

꽃 + 엘리시아 식사권 묶음 상품
30% 할인판매
“엘리시아 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구입가능

www.flowerelysia.co.kr

www.flowerelysia.co.kr

애경사화환 / 축하화분 / 꽃바구니 / 꽃다발

인터넷주문,카드결제,계좌이체 가능

주문전화 062)513-4000